



촛불문화제 밝힌 '동심'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을 따라 이것저것 척척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 철회를 외치던 촛불 문화제 현장에서 음악소리에 맞춰 멋지게 율동을 하는 꼬마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촛불을 조명 삼아, 고시 철회를 외치는 어른들을 관객 삼아 이리저리 고사리 같은 손을 움직이는 꼬마 아이의 몸짓에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꼬마팬들도 생겼습니다. 두 꼬마 녀석이 무대 한쪽에서 촛불 문화제의 스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촛불 문화제는 평화롭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학예회가 펼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광운함과 달리 폭력으로 물든 촛불 문화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강경 진압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 행렬을 가로 막아야 하는 어린 전경들의 부상소식도 안타깝습니다. 촛불 문화제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함께 거리로 나온 꿈나무들의 모습도 곱잘 눈에 띕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세상, 어른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반영될 것입니다. 어린 꿈나무들에게 평화가 공존하는 어른의 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유머

▲건망증
어떤 남자가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다.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순간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났다. 생각나는 건 친구 별명밖에 없었다.
“저가..”
“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랑 통화가 급했던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 있어요?”

▲방법?
보건화 강연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다.
“단순 복부 비만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둘러본 교수가 대답했다.
“화장실에 가서 해결하도록!”

▲미용실
여자가 미용실에 갔다. 파마를 하고 커트를 하고 두 시간이 넘게 자리에 앉아있었던 여자는 머리가 끝나자 계산하러 가기 위해 카운터로 갔다. 그러자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여자의 얼굴을 보며 친절하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미용사와 약속을 하셨나요?”

▲어떤 편지
우체국 직원이 ‘하늘나라 하나님에 계신 곳’이라는 주소가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하나님, 돈 10만원이 너무 필요합니다. 급히 쓸데가 있는데 돈은 구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10만 원 좀이 주소로 보내주세요.’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편지를 본 직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동료와 돈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은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이었다. “안타깝지만 이 정도라도 보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5만원을 그 주소로 보낸 며칠 후 답장이 왔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시다.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돈은 우체국 놈들이 뜯어먹었나 봅니다.’

▲면허증
어떤 여자가 10살 된 딸을 차에 태우고 길을 가고 있었다.
“엄마 운전 잘해?”
“그냥 보통이지 뭐.”
그러자 딸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래서 엄마 운전면허증에 보통 2종이라고 쓰여 있구나.”

▲이유
목사가 말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사랑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일어나서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목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시대에 남아있는 의인이 저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다. 그 순간 교회에는 코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용지물
두 남자가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새로 나오는 차종 라이터와 재떨이가 없는 차들이 많다는군.”
“왜 그러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야.”
그러자 다른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게 이유라면 자동차들에 왜 아직도 방향지시등과 속도계가 달려있지?”

리빙 센스

위장에 좋은 기체조

▲위장 강화운동(각각 10회 이상)
두 손을 단전에 모은 상태에서 한 손은 머리 위로 올려 하늘을 밀 듯이 하고, 다른 한 손은 바닥을 향하며 땅을 밀 듯이 한다. 손을 바꾸며 각각 10회 정도 하면 비, 위 경락을 강화하여 위장이 튼튼해진다.

▲앉았다 일어서기(20회 이상)
양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그대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0회 반복하는데,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운동을 할 때 발끝을 바깥쪽으로 향하면 살이 쪼며, 안쪽으로 향하면 살이 빠진다.

▲발끝 부딪히기(100회 이상)
앉은 자세에서 양 발을 앞으로 쭉 뻗고 양 손바닥은 뒤로 바닥을 짚는다.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서로 부딪힌다. 이때 반드시 무릎은 굽히지 말고 쭉 편다. 하체의 기혈 순환을 도와 두통에 효과적이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음 5월 28일 壬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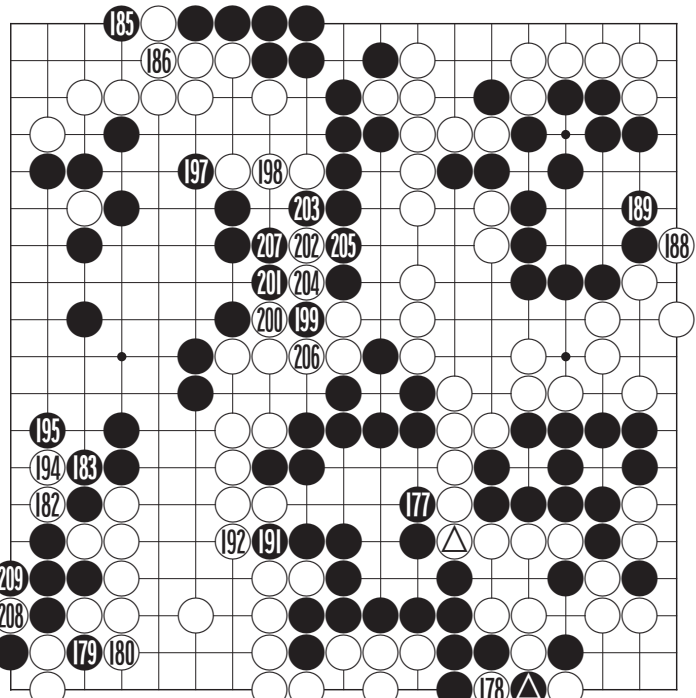
子	36년생 배인 편에 예사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건강을 살펴라. 48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수가 있을 수 있다. 60년생 상문으로 식구가 줄 수도 있다. 72년생 새로운 소식 있으나 서둘러 마라. 84년생 시기상조이니 조심 하라. 행운의 숫자 : 02, 43
丑	37년생 직장의 흐름을 읽으면 길이 보이라라. 49년생 자녀문제가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라. 61년생 초행 길은 불편하고 낯설다. 73년생 앞으로의 불편한 일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85년생 길이 답답하고 안보이나 숨통은 트인다. 행운의 숫자 : 10, 42
寅	38년생 득보다는 실이 많고 흥이 발생한다. 50년생 시비를 따지는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인내하라. 62년생 서로 경쟁하거나 흥하고 같은 적다. 74년생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진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1
卯	39년생 절대로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51년생 백사가 불성하니 신중을 기려하고 기다려야 한다. 63년생 앞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진 듯하나 결과는 미미하다. 75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면 큰 득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9
辰	40년생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 경계망동하지마라. 52년생 장기간 움직여서 벗어난 기쁨이 다가 오리라. 64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새로운 설계를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길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5, 33
巳	41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53년생 추진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65년생 생기가 발산하고 몇 차례 새로운 일이 나타날다. 77년생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라. 행운의 숫자 : 18, 32
午	42년생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협력자를 돌아보라. 54년생 여행을 삼가고 실천으로 보여줘라. 66년생 새로운 희망의 실재가 있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78년생 새로운 사업 구상을 재고 받고 조치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9, 31
未	43년생 대문 안과 밖을 살펴보면 勿을 예방한다. 55년생 가정의 안정이 있고 식구가 누는 길사가 있을 수도 있다. 67년생 구상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다. 79년생 남של은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6, 28
申	44년생 적은 돈의 소비가 있다. 56년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편한 일은 없다. 68년생 화는 많고 깊은 일은 피으니 변화를 자제하라. 80년생 부부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내라. 행운의 숫자 : 24, 27
酉	45년생 자신의 일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라. 57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 69년생 길사는 적고 흉사가 많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81년생 내실을 기하면 대수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3, 43
戌	46년생 의욕적인 추진은 있다. 58년생 길은 미려하지만 내부는 불평의 세일이 돌볼 수도 있다. 70년생 고역은 없으나 마음 놓고 지내라. 82년생 내용으로는 통한 듯 하나 일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22
亥	47년생 급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온다. 59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71년생 집안간 지식이 돌아온 형상이나 결과는 허망할 수도 있다. 83년생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배가 되어 당하리라. 행운의 숫자 : 02,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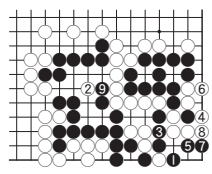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대회

사라져 버린 찬스

3회전 1국 8보 (177~210)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현승 5단 (창이유통)



<참고도>

백이 ㉔로 두어 패를 써 온 장면이다. 김현승 5단은 초읽기에 몰려 고개를 가웃하다가 177에 받고 말았는데 정답은 '이것은 팻감이 아니다'였다. 이때 흑이 '참고도'의 흑 1로 때웠으면 대역전도 가능할 뻔 했다. 백 2로 잡으러 오면 흑 3으로 잇는 것이 선수며 그러면 백은 4에 두어 살 수 밖에 없는데, 흑이 7까지 선수한 다음 9로 살게 된다. 이 그림이라면 대역전국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백도 2로는 3에 두어 살게 되는데 이것도 흑이 9에 두어 성공이다. 순식간에 박광주 5단의 대실수가 지나가 버렸다. 이제부터는 박광주 5단도 이성을 찾았는지 정확한 팻감을 쓰기 시작한다. 182, 188은 절대패감이며 흑 197의 패수에 백 198로 받은 수가 결정타가 되었다. 이때 흑이 199를 생략하면 백이 202에 두어 대마가 차단당한다. 이곳에서 선수를 뽑아 210으로 패를 해소해서는 마지막 기회는 사라지고 백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181, 187, 193, 210-▲, 184, 190, 196-178.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바둑리그, 영남일보 탈골피

디펜딩 챔피언 영남일보가 2008 한국바둑리그에서 5위로 올라섰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이 대회 6라운드에서 울산 디아체를 5-0으로 격파했다. 이로써 영남일보는 kixx, 티브로드, 디아체와 2승4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개인승수에서 앞서 5위까지 도약했다. 6라운드에서 패배하면서 2승4패가 된 디아체는 개인승수가 가장 적어 8위로 주저앉았다. 영남일보 강유택 초단의 활약이 돋보였다. 3국에 나선 강유택은 디아체의 강자 박홍석 6단을 맞아 260수를 주고 받는 혈전 끝에 10집반 승을 거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93>

I guess you can come over
이리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 What do you want to do?
B : I guess you can come over.
A : All right. I'll be right over.
B : Okay.

A :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B : 이리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 알았습니다. 지금 건너가죠.
B : 좋습니다.

* 그 분이 그 선물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I guess he'll like the gift.
* 그 분에게 자동차 한 대를 사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I guess I'll buy him a car.

오하오우 니혼고 <1193>

これ駄菓子(だがし)じゃないですか
이거 막과자(불량식품) 아네요?

A : あ、これ駄菓子(だがし)じゃないですか。私子供も頃(ころ)よく食べたんですよ。
B : そうですよ。私もよく食べました。
A : 懐(なつ)かしいな。最近(さいきん)は駄菓子屋(だがしや)が少(すく)ないですからね。

A : 아, 이거 막과자(불량식품) 아네요? 저 어릴 적에 자주 먹었어요.
B : 그렇죠? 저도 잘 먹었어요.
A : 그렇네요. 요즘 막과자를 파는 곳이 적으니까요.

最近(さいきん): 최근, 요즘
懐(なつ)かしい: 그리다

니하오 쑹구위 <170>

你要喝什么?
뭐 마실래요?

A: 你要喝什么?
Nǐ yào hē shén me?
니 야오 헤 셴 메?
B: 我要喝咖啡。
Wǒ yào hē kāfēi.
워 야오 헤 캐피.
A: 还要别的吗?
Hái yào bié de ma?
하이 야오 비엥 데 마?
B: 不要了。
Bú yào le.
부 야오.

A: 뭐 마실래요?
B: 전 커피요.
A: 또 다른 거겠어요?
B: 됐어요.
要 [yào] 원하다, 필요하다
喝 [hē] 마시다

한자 이야기 <810>

掩耳盜鈴(엄이도령)
가릴 엄, 귀 이, 훔칠 도, 방울 령

엄이도령(掩耳盜鈴)은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말로, 방울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남의 귀에도 들리지 않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다. 춘추전국시대 진(晉)나라 명문가인 범씨가(范氏家)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큰 종(鑼)이 있었다. 그런데 범 씨 집안이 몰락하게 되자 집안에 도둑이 들끓었다. 어떤 도둑이 그 종을 훔치려고 하는데, 종이 너무 무거워 옮길 수가 없었다. 범의별 궁리를 다하다가 결국 종을 깨뜨려 조각내어 옮기기로 하고 커다란 망치를 가져와 힘껏 종을 내리쳤다. 도둑은 '뽕' 하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엄감결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겁이 나서 얼른 자신의 귀를 틀어막았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呂氏春秋, 不術論, 自知篇)
이 말은 임금이 바른말하는 신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비유로 제시되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듣지 않는다고 남도 모르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귀를 가리고 종을 깨뜨리는 도둑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결국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상호 소통(疏通)을 불가능하게 한다.